

북구 광융합무역촉진단, 동남아서 1251만달러 수출 성과



인도네시아 수출상담회 현장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광융합무역촉진단, 인니·베트남 시장 공략 성과 1251만달러 수출계약...해외 판로 확대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기반 산업인 광융합 분야 기업의 동남아 시장 개척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파견했던 광융합무역촉진단이 총 1,251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실적을 안고 돌아왔다.

17일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출국한 광융합무역촉진단이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이번 무역촉진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수출상담회, 현지 바이어 상담, 기관 간담회, 기업 방문 등 다양한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펼쳤다.

먼저 자카르타에서는 이틀간 수출상담회를 열고 현지 바이어를 대

상으로 시장 개척 활동에 나섰다.

또한 GICC(녹색혁신협력센터), 농촌낙후지역개발부, 협동조합부 등 여러 현지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기업의 현지 진출과 협력 기반 확대에 힘썼다.

특히 현지기업과 NH네트웍스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생활 인프라 및 수질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지역기업의 현지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호치민에서도 수출상담회와 현지 바이어 미팅을 통해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호치민 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베트남 시장 진출 및 경제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그 결과 총 1,251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과 5건의 기업 간 업무

협약(MOU) 체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북구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구는 지난 3월 참여기업 모임을 완료한 이후 수입 경험, 구매 의사, 현지 유통망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 맞춤형 바이어 발굴에 집중했다.

지난달에는 참여기업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촉진단 운영 일정과 현지 바이어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상담회 전략을 점검했다.

추후 북구는 이번 광융합무역촉진단 활동을 통해 구축된 참여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의 네트워크가 지속 가동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섭 기자

광산구 통합돌봄 식사지원, 독거장애인 위기 구해

식사 배달 넘어 안부까지 살핀다 위기 대응 강화...돌봄 기능 확대

광주 광산구의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식사 지원사업이 위기 상황에 놓인 독거장애인의 생명을 지키며 지역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해내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한 식사지원 수행기관 직원은 대상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

집 안에 쓰러져 있던 독거장애인을 발견하고 즉시 구청과 119에 신고해 병원 이송과 가족 인계가 이뤄졌다.

대상자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기존 돌봄서비스도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 사례를 계기로 광산구는 식사

지원이 단순히 식사 배달을 넘어 안부 확인과 위기 대응까지 수행하는 통합돌봄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산구는 지난 13일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사업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식사지원 수행기관 5개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사지원 과정에서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 전달의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수행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식중독 예방 수칙과 대량조리 음식 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식사지원은 단순한 배달 서비스가 아닌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돌봄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전했다.

광산구가 추진 중인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식사지원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상황까지 살피는 현장형 돌봄 체계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수행기관 종사자들의 세심한 대응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광산구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로 식사지원 서비스의 공공 돌봄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수행기관과 행정기관 간 협업 체계도 한층 촘촘하게 정비하고 있다.

대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는 대응 절차도 지속 운영된다. 아울러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도 강화했다.

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 교육도 병행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광산구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독거장애인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광산구의 목표다.

/서기만 기자



통합돌봄 식사지원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